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예수사랑 큰잔치, 앞으로 5주

다음주 태신자카드 작성, 구역일꾼 교육 실시

92년 처음으로 실시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던 예수사랑 큰잔치가 이번 10월 17일에 실시된다.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이번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자는 것이 본 부처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교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슬비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열기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이 시점에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만들어 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5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도집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전도집회에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므로 무장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내집 근처 다니면서 열심으로 전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태신자 카드작성, 9월19일

전도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기로 했다. 태신자 카드는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2일(주일)에 배부되는 태신자 카드를 각자가 지니고 있다가 9월 17일(금) 구역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대상자를 적은 후에 9월 19일(주일) 오전 구역장이 간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면 9월 19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드리는 헌신예배 시간에 그들의 명단을 놓고 당회장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된다. 유념하여야 할 것은 태신자 카드를 다음 주일(9월 1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공중전화카드 제작, 선물용으로

전도지를 배부해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가 많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안면은 있으나 주소가 없어서 말을 건네지 못할 경우도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마

땅치 않아서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는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공중전화 카드는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등 세 종류로 만들었으며 특별히 교회의 사진과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들어가 있다. 이 카드를 제작하는데 드는 인쇄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전화카드의 기본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카드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적은 금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화카드는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한다. 일반 공중전화카드는 약간의 할인이었으나 인쇄하는 과정에서 혜택이 없으므로 교회에서는 2천원, 3천원, 5천원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홍보를 사용안내

여러가지 홍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이 나오는 일정표를 소개한다.

- 9월 12일 - 태신자카드, 스티커
- 9월 19일 - 차량스티커, 팻지, 전도지 4종
- 9월 26일 - 예수사랑 포스터, 초청장
- 10월 3일 - 예수사랑 홍보신문
- 10월 10일 - 예수사랑전단, 사진전

예수사랑 큰잔치 일정표

- ① 기본계획 공포 및 교역자, 장로 설명회 : 9월 15일(수) 수요일 2부 예배후 베다니홀
- ② 구역장 특별교육 : 9월 15일 - 10월 6일 매주 수요일 1부 예배후 신성종 목사
- ③ 태신자 작성 : 9월 19일(주일)
- ④ 조직 점검 및 전체 설명회 : 9월 19일(주일) 4부 예배후 교구모임 시간
- ⑤ 93 예수사랑 헌신예배 : 9월 19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
- ⑥ 교역자, 장로 기도회 실시 : 9월 22일(수) - 10월 13일(수) 매주 수요일 2부 예배후 (베다니홀)
- ⑦ 교역자, 장로 양육 교육 : 10월 4-5일 (장석교회 담임목사, 이윤남 목사)
- ⑧ 부흥회 : 10월 11(월) - 10월 15(금)

강사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사장, 수원 침례교회 목사)

- ⑨ 총동원 새벽기도회 : 10월 11일(월) - 10월 16일(토)
- ⑩ 성찬식 : 10월 15일(금) 새벽기도회시
- ⑪ 93 예수사랑 큰잔치 : 10월 17일(주일)
- ⑫ 새가족 환영회 : 10월 24일(주일)

원로목사 · 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9월 13, 14일 의정부 아름다운교회 부흥회 인도
- 9월 18일 송파동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설교

당회장 신성종 목사

- 9월 13일 목회자 세미나 강의
- 9월 15일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구역일꾼 특별교육(본당)
- 9월 17일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총 2,367명 대상으로

교구일꾼 교육 실시

9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1부 예배후, 본당에서

예수사랑 큰잔치 교육분과(분과장 김은호 장로)는 10월 17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교구일꾼(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권찰)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9월 15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수요일 1부 예배후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이다. 교육내용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일꾼은 전원 참석해야 한다.

일자	시간	강의제목	강사	사회
9월 15일(수)	(1)12:10-12:20(10분)	찬양	현상민 목사	최인근 목사
	(2)12:20-13:00(40분)	구역일꾼의 역할과 사명	신성종 목사	
	(3)13:00-13:10(10분)	기도회	신성종 목사	
	(4)13:10-14:00	점심식사-만나홀		
9월 22일(수)	(1)12:10-12:20(10분)	찬양	현상민 목사	최인근 목사
	(2)12:20-13:00(40분)	전도의 준비-기도회	신성종 목사	
	(3)13:00-13:10(10분)	기도회	신성종 목사	
	(4)13:10-14:00	점심식사-만나홀		
10월 6일(수)	(1)12:10-12:20(10분)	찬양	현상민 목사	최인근 목사
	(2)12:20-13:00(40분)	구역일꾼의 심방과 새신자 관리	신성종 목사	
	(3)13:00-13:20(20분)	수료식	신성종 목사	
	(4)13:20-14:00	점심식사-만나홀		

어떻게 태신자 카드를 작성할까요?

- ① 백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름들을 적어봅니다. 나의 가족, 직장 동료, 학급 급우, 이웃의 사람, 불신자 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상으로 믿고 이름을 적어봅니다.
- ② 이름에 기록된 카드 중에서 교회 보관용은 구역장을 통하여 교회에 제출하고 개인 보관용을 성경책에 끼워 늘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 ③ 교제의 방법으로는 영혼을 향한 공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것입니다.
- ④ 실천방법으로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준비된 사랑의 편지를 보내며 상황에 따라서 매주일 주보와 주간충현, 각종 전도지, 설교 테이프 등을 전달하며 한해에 힘쓰고 인격적인 교류를 가져 믿음의 증경합니다.

임 성 환 (목사, 제23교구, 사랑부, 전도위원회 지도)



교회설립 40주년

교회는 지난주일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아 4부 예배를 드림 40주년 기념예배로 드렸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충현 40년의 의미'라는 설교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충현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교했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40년전 첫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슈베르트의 미사 13단조를 연주하며(사진) 교회설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혼 문제는 요즘 읽는 사람이나 안 읽는 사람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약 50,000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미국을 이혼 많이 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혼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이혼률이 높은 민족이 우리 한국민족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일반적인 가르침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혼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로 종이나 창녀들과의 육체적인 관계나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했을 경우 일반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고 제사장의 딸의 경우는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혹시나 남자들이 처녀를 유혹했을 경우 구약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하라.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혼을 미워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첫째 간음을 했을 때, 둘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2. 결혼의 4대 목적

결혼하는 데는 네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동반자의 관계와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두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듯이 간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배우게 하고 또 예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결혼제도를 두었습니다.

본문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명예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가 같이, 당나귀가 함께 명예를 메고 밭을 갈았다. 두 마리에게 명예를 메이고 밭을 갈도록 했던 것처럼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같이 명예를 메고 죽는 날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두신'인데 이 말의 뜻은 '성별되다. 헌신했다'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 결혼에서의 약속을 깨뜨리면 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결혼해 놓고 가정의 경제적 책임도 안지고, 신앙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사대 목적입니다.

3. 이혼에 대한 교훈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기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사회, 국가의 복지와 행

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혼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이혼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집에서 내어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충현강단



이혼에 대한 가르침

(마 19:1-12)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들은 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보수파는 삼마이파(Shammai)라 그랬고, 자유주의파를 힐렐파(Hillel)라 했습니다. 삼마이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좁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즉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힐렐파에서는 아주 넓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수치되는 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심해서 여자는 숫자에도 끼지 못했는데 이것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는 말은 남편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무례한 일을 했을 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이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상하거나, 음식을 태우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이혼사유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요? 옛날 조선조때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곱 가지의 이혼을 당하는 악이 있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자식을 못낳는 경우, 음행을 했을 경우, 질투를 했을 경우, 나쁜 병이 있을 때, 여자가 구설수에 오를 때,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문이 말씀하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라고 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면 신명

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혼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동감하는 것이 아니고 피치 못할 경우는 허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하는 관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제한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자위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4.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을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언뜻 보면 삼마이파의 해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음행한 연고없이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삼마이파와 같습니다. 그러나 삼마이파에서는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것도 바로 음행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과는 재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래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그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세 가지 중요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육적인 것에서 비롯된 악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입니다. 세 번째로 최선의 길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때도 이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허용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결혼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성별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늘 방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원만한 부부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범죄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미혼자의 경우는 앞으로 결혼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악을 범하지 않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드리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관과 삶의 모양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면서 산다. 주로 노인들이 그렇다. 이들에게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과거 지향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만 보면서 산다. 주로 중년층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재 지향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산다. 그들의 철학은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환경과 나이에 따라 변하는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글 / 신 성 종 목사

인수집시의 수련회 - 거제도 신명교회를 다녀와서

서로를 잘 알게 된 교제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박 동 업 (집사, 제11교구)

8월30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첫 수련회의 기대감과 2박 3일이라는 먼 여정의 설렘속에 하나 둘씩 버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을 알면서도 이름은 모르는 얼굴 따로, 이름 따로도 있었고 저 집사도 우리교회 교인인가? 할 정도의 만남이 없었던 분들도 있었기에 그저 서먹서먹함 속에 윤용규 목사님을 모시고 37명이 버스에 올랐다.

수련회 장소는 거제도 신명교회였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곳 신명교회에 도착하여 도착 감사예배를 드렸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 가는 큰 섬으로 도착한 그곳은 아름답고 조용한 동네였다. 김 대통령 생가에 들른후 그곳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탁트인 바다, 답답함이 없이 그저 후련해 보인다. 아마 김 장로님도 무언가 일이 잘 풀려 지지 않았을 때 이곳에 내려와 이 바다를 보며 기도하며 아픔도 잊으며 건디어 왔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이곳의 신명교회는 김홍조 장로님이 43년 전에 설립하셨다고 한다.

저녁 식사후 윤용규 목사님의 강의와 기도를 마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정신무장을 하였다. 이튿날 새벽 강의 및 기도회가 있은 후 먼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 40분 가량 달리고 헤메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하고 생각할 때 한 마리의 삼치가 잡혔다. 우리는 배 위에서 그 한마리를 놓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하나님 우리는 고기잡는 기술은 없으나 능력 주시사 고기를 많이 잡아 온 동네 잔치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40cm 가량의 삼치가 잡히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환호성과 기도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다. 배를 몰고 나간 어부도 감탄하며 놀랐다. 모두 19마리를 잡았으니 말이다. 어시장에서 한 마리에 25,000원 정도한다고 귀뜸까지 해주었다. 아침과 점심은 생



선회와 매운탕으로 그곳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드로의 고기 잡는 모습을 얘기하며 기도 능력의 간증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튿날 마지막 새벽 강의 및 기도회를 마친후 아쉬운 작별을 하며 서울로 출발하였다. 귀경길에 마산에 계신 김홍조 장로님을

찾아 뵈었다.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다. 위하 여 윤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나오는데 83세된 장로님이 손수 큰 대로변까지 걸어나오시며 못내 아쉬움을 금치 못하신다. 멀리어장 방문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하셨으나 사양하고 돌아왔다. 처음 만남이었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기도의 아버님이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안은 처음 서먹서먹했던 그 감정은 모두 없어지고 얘기하며, 웃으며 서로 나누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힌 담들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런 좋은 모임을 처음으로 했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다.

서로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며 주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기쁨 속에 찬양을 드리며 마음들이 하나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경길은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됨을 감사드리다. 이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지원해 주신 당회장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경비 절약을 위하여 매 식사 때마다 봉사로 수고하여 주신 김현옥, 임선에 두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새벽기도회와 부부 기도회로 연결되면서 주님께 더욱 충성과 헌신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뿐이다.

이제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됨을 감사드리다. 이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지원해 주신 당회장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경비 절약을 위하여 매 식사 때마다 봉사로 수고하여 주신 김현옥, 임선에 두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새벽기도회와 부부 기도회로 연결되면서 주님께 더욱 충성과 헌신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뿐이다.

□ 전도회 활동을 하면서 □

가슴 뭉클한순간들, 진정한찬양의 의미를 느끼며

성 향 록 (집사, 마리아 7지회 회장)

마리아 7지회(회장 성향록)는 등촌동에 소재한 국군통합병원(담임목사 강창희)에서 8월26일(목)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에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였다. 군전도회(회장 김재명)와 마리아 협의회(회장 주순희)의 후원아래 회장을 비롯하여 1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병원의 환자들 뿐 아니라 위안소 간 모든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통합병원의 강창희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주순희 집사의 기도와 대학부 이병각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이병각 목사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절망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와 희망을 심어 주셨고 뒤이어 2부에는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어 비밀이 되었다는 '예수 그이름'을

부른 생도회, '주 이름을 늘 찬양해'를 부른 기독교 장교회(O.C.U), 어린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같이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울동하며 찬양한 신우회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30명 이상이 나와 '주는 평화'를 부른 일반외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찬양한 홍광외과, 기타를 치며 솔로로 '나 어느날 꿈속을'을 부른 신경외과 환자,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에 링겔주사를 꽂은채 반주를 하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의 이비인후과 환자들, 그 외에 심장내과, 위장내과, 일반내과, 유출과 등 각 병실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찬양하는 모습들...그들이 노래를 음악적으로 잘 불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을 하였기에 더욱 진한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

하도록 지음받은 존 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상품으로 준비한 선물들과 간식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오후 5시에 선 인생길에서

이 형 주 (권사, 제17교구 풍남 4구역)



오후 5시에 접어든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직도 새벽5시로만 착각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교회설립 40주년 기념행사로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시간마다 능력의 종들을 통하여 특강을 듣게 하고 선교사님들의 현지 현황보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 헌신하시며 선교하시는 여섯분들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투사,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것일세 하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선교하다가 본국에 돌아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파송하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몇백년쯤 문화가 뒤떨어진, 옷을 입지 않고 사는 미지의 나라, 전쟁이 아닌테도 테러사건이 아직도 계속되는 위험한 나라. 언어도 음식도 맛지 않고 부모형제, 친척도 없는 나라에서 20년, 17년 혹은 14년 7년 이렇게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선교하시는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보고가 되었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어 지난날에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세례 교인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왕에 세상에 한 번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의 투사들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고생과 수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자들을 들어 강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배를 주리면서 선교하실 때, 후방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위해 봉사했다고 자부했던 우리들의 생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들의 값진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40년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충청교회를 18명으로 시작케하시고 외형적으로는 프랑스에서나 볼수 있는 고귀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선교사역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져 지치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의 필요성, 우리의 헌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93년 2학기 장학생 76명 선발

오늘 찬양예배 후 전달식

교회는 93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찬양예배후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2학기에는 총 76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신학생이 6명, 대학, 대학원생이 30명, 고등학생이 12명, 중학생이 27명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에 모여 지정된 자석에 앉아야 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재덕 김성곤 백의현 김필수 정갑신 이준우 김철성 추상헌 홍문석조현숙 강서기 박명숙 임영호 정문지 이하늘 정미애 최정아 안복남

이종희 윤정훈 김희석 유홍수 박세준 안설희 이은례 박태진 이기엽 마상찬 추명희 배지은 박형경 김신영 조영미 정영미 김경성 김운성 신익수 박선정 정상미 김수영 이도연 염혜선 임성이 홍준석 왕승원 김지훈 문선웅 남문희 박동석 최면섭 이민욱 강선미 구혜경 신병철 박준영 김봉선 임필아 김수희 김명민 안의정 박두협 김은주 지효진 오인석 조혜영 최철훈 이은정 김요셉 유 철 황지훈 김환용 이하나 신미라 강석천 이희영 임우영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붙들고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9월13,14일(월,화) 의정부 아름다운 교회 부흥회 인도, 9월18일(토) 송파동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9월13일(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9월15일(수)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교구일꾼 특별교육, 9월17일(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회개하여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에 놓고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하면서 힘써 전도하게 하소서.
4.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에 모두 다 참여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9월15일(수)부터 시작되는 교구일꾼 특별교육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베드로남전도회 연합모임, 18일(토), 양재시민공원에서

금주 토요일(18일) 베드로 남전도회 협의회 회원들 전원이 양재시민공원에서 10월 17일에 있을 예수사랑큰잔치를 대비한 전도대회 겸 23개 베드로 남전도회 지회 활성화 및 회원배가 운동과 각 지회간 친교 및 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다함께 모인다.

오후 2시 부터 7시 까지 모임 본 대회는 체육대회 성격으로 모여 친교 및 우의를 다

경로대학, 9월16일, 오전 11시

2학기 개강예배

경로대학은 제2학기 개강예배를 오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2학기에 들어간다. 경로대학의 입학자격은 60세 이상의 성도로 불신자도 가능하다. 등록은 경로대학 사무실(전화 구내 207번)에서 하고 있다.

둘로스 모임에서 주최하는 예수사랑 고등부잔치

고등부는 오늘 제3차 미래 지도자 운동의 일환으로 '예수사랑 고등부잔치'를 개최한다. 각 고등학교 모임인 둘로스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둘로스 한 마당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이며 장소는 갈릴리홀이다.

에바다부에서 컴퓨터 기증 요망

에바다부는 듣지 못하고 말하기가 불편하여서 의사소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 각 가정에서 쓰던 컴퓨터나 팩시밀리를 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의 수단으로 컴퓨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성도들 중에 쓰던 컴퓨터나 팩시밀리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에바다부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는 552-8200(구내 교환 416)

중등2부, 작은음악회

9월 26일, 봉사관 가나홀에서

중등2부는 9월 26일에는 작은 음악회를 봉사관 가나홀에서 오후 1시에서 2시 20분까지 가질 예정이며 10월 10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예배, 찬양 및 간증(초청대상 : 하덕규, 박종운), 결심의 시간, 반별 친교 등 4부로 진행할 것이다.

지고 노방전도 및 전도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베드로전도회는 4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도들의 모임으로 각 교구마다 조직되어 있다.

사랑부 개교 5주년

5년근속 교사 및 개근 학생 시상

사랑부는 지난 9월5 일로서 개교5주년을 맞아 5년 근속교사 16명과 5년 개근학생 14명에게 특별시상하고 전원에게 기념품과 푸짐한 떡잔치를 열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2교구, 금융실명제 특강

오늘 오후 2시 30분, 교육관212호

2교구에서는 교구모임시간에 이인용 집사(조흥은행 남산지점장)를 강사로 실명제 특강을 실시한다. 오늘(12일) 오후 2시 10분에 교육관 212호실에서 실시되는 특강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청년부 제1차 예수사랑청년잔치

9월 19일, 통합으로 장기결석자에게

청년부는 청년부 통합과정에 결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9월 19일 제1차 예수사랑잔치를 연다. 기존 청년부 회원 중 장기 결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회에 청년부에 적을 둔 모든 회원을 동원할 계획. 한편 9월 17,18일에는 임원수련회를 가지고 1차 예수사랑잔치를 준비한다.

'현대인간' 공연

18일(토), 나사렛홀에서

임마누엘 찬양대 성극부에서는 오늘 18일(토), 오후 3시와 5시에 나사렛홀에서 '현대인간'이란 연극을 공연한다. 임마누엘 찬양대 성극부는 연극동호인들이 모여 틈나는대로 연습하는 모임으로 이번에 공연하게 된 '현대인간'은 월타 소릴 원작으로 인간심성의 죄의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등3부 교역자 정광욱 목사로

중등3부의 지도교역자인 장연해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13교구 담당의 정광욱 목사님이 담당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충현의 모든 가족에게 문안이 늦어졌음을 용서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모두 평안 하신지요. 매달 보내주시는 주간충현과 충현의 만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년 7월 살아계신 주님의 섬세하신 다루심에 결신을 다짐하게 된 예수제자훈련(D.T.S)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어 이곳 오끼나와로 와있습니다만 충현교회는 주님과 저의 첫 만남의 집이요, 저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난 곳이어서 충현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반갑고 보내주시는 책자를 대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만나로 몸은 혼자이지만 기도 속에서 저의 가족들과 매일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은 어제 7일이 말복이었으니까 아직 무더위가 한창이겠지요. 북위 15 이상의 이곳 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듯합니다만 이곳은 일본본토하고는 많이 다른 시골이라서 한국의 제주도나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의 생활은 YOUTH WITH A MISSION 사역(訓練·宣敎·救濟) 中訓練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일어가 짧은 선교사들의 일상공부를 지도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가까운 성서장로영광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20명 내외가 출석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성도간의 교제와 수요일 저녁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목요일 저녁 가정집회 등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안에서의 형제자매를 그리고 그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달에 한번은 반월야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Y.M.B.A.S.E에서는 매 월요일 저녁 초교파적으로 찬양예배를 드리고 매월 첫째 금요일은 금식기도(주로 중보기도)를 하고 두번째 금요일은 오끼나와 부흥을 위한 저녁집회가 있습니다. Y.M.I. 초교파적 선교단체이므로 선교지 지역교회와의 교랑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어디든지 뛰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집단 속에 자기의 존재위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닌 자기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셔도 쉽게 열려보이지 않는 겉사람의 일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세계에서 자랑하는 부의 나라 일본, 그것은 그 나라의 허울 좋은 이름일 뿐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금 지진, 폭우, 태풍 등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본인들, 동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이 늘고 있으며 향락산업의 유혹에 빠져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일인들, 진정 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의 미온 얼굴인 일본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죄인줄 모르고 이런저런 우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가엾은 모습을 읽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공로(空路)로 두 시간의 가까운 이웃이 죽어감을 우리의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자에게 상당액을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있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일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길 기도하면서, 그들과의 교제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 속에 높이 쌓아올린 하나님과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주님의 치유의 은사를 체험하도록,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치유해주시고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고야 말겠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와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주소 : 전정우(全貞雨) 執事

371, Ozato, Okinawa City Japan 904-21

▷ 전정우 평신도 선교사는 20교구 집사, 일본어 예배부 주교교사로 봉사하다가 일본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단신 일본 오끼나와로 건너가서 Youth With A Mission 이라는 초교파적 선교단체에 소속하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바 교회앞으로 보내온 선교지 현황을 여기에 실습니다.